

李丞宰 外 『角筆口訣 寫眞 資料 2: 國寶 204號 周本 『華嚴經』 卷第36 -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李丞宰 外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 2 - 周本』 『華嚴經』 卷第36』

이시즈카 하루미치(石塚晴通)

(日本 北海道大學 名譽教授 · 訓點語學會 會長)

지난해에 刊行된 李丞宰 外 『角筆口訣 寫眞 資料 1: 初雕大藏經『瑜伽師地論』卷第5·卷第8 -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以下 資料 1로 略稱)과 李丞宰 外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 1 - 初雕大藏經의 『瑜伽師地論』卷第5·卷第8 -』(以下 解讀 1로 略稱)(大學社, 2005)에 이어 제2탄으로 李丞宰 外 『角筆口訣 寫眞 資料 2: 國寶 204號 周本華嚴經 卷第36 - 誠庵古書博物館 所藏 -』, 李丞宰 外 『角筆口訣의 解讀과 翻譯 2 - 周本『華嚴經』卷第36 -』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실로 학계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이다.

筆者는 일찍이 口訣學會 第2回 國際學術大會(2001년 12월 7일~8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日本의 訓點語學 研究史에서 가스가 마사지(春日政治)의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点の國語學的研究』(岩波書店, 1942)가 차지하는 위치와 같은, 국어사 연구 자료로서 중심축으로 삼을 만한 구결 연구 자료의 간행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한 바 있다(石塚晴通 「漢字文化圈의 加點史에서 본 高麗 口訣과 日本語 初期 訓點 資料」 『口訣研究』 第8輯, 2002). 이번이 이 두 책이 간행된 것은 바로 필자의 바람이 실현된 것이며 구결 연구사상 획기적인 성과로서 축하해 마지 않는다.

일본의 訓點語 연구는, 創始者인 오야 도루(大矢透)의 연구를 계승한 가스

가 마사지(春日政治)가 오랜 시간에 걸쳐 고군분투한 결과, 앞서 말한 학계가 공유할 만한 자료라는 기초적 성과를 얻은 것이다. 한국의 구결 연구는 1996년 口訣學會 창립 이래 단체에 의한 연구를 거듭하여 왔다. 그로 인해 2000년 7월에 角筆 點吐口訣이 발견된 이후 길지 않은 기간 내에 기초적인 성과를 이루어 낸 것이다. 우선 단체에 의한 연구 활동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번 寫眞 資料도 資料 1과 마찬가지로, 原本 所藏者인 趙炳舜 誠庵古書博物館 館長의 학술적 이해가 바탕이 되었고, 그 위에 角筆 口訣 資料를 반드시 사진 자료화하고자 한 日本의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자들의 열의가 이루어낸 성과라고 하겠다.

이 시리즈의 사진 자료는 「角筆口訣 寫眞 資料」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나, 종래의 典籍 資料 寫眞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많은 書誌의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진 촬영에 요시자와 야스카즈(吉澤康和) 박사가 개발한 角筆 스코프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종이의 材質과 섬유까지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종이의 質感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필자는 原本 調査 때에는 角筆 資料가 아니라도 종이의 材質 판정을 위해 角筆 스코프를 사용하고 있다. 全體의으로 典籍 資料라기보다는 미술품 수준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으며, 종이 材質뿐 아니라 판식·먹 등의 書誌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角筆點 加點者나 加筆 年代를 明記한 識語가 없고, 角筆 點吐의 年代나 學統을 파악하는 데 자료 자체의 書誌 파악이 극히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 간행 시리즈의 寫眞 資料는 書誌 파악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周本 『華嚴經』 卷第36의 경우도 版本 자체의 刊·印·修와 年代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點吐口訣의 加點 年代도 11世紀 末期 刊行을 전제로 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이번 寫眞 資料가 寫眞 資料 1과 크게 다른 점은, 정밀한 컬러사진과 함께, 寫眞 위에 角筆 點吐口訣 부분에 3색으로 표시한 寫眞을 첨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7쪽의 凡例 3에 의하면 黃色으로 나타낸 加點은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判讀에 합의한 것이고, 赤色으로 표시한 것은 判讀에 확신을 얻지 못한 것이며, 靑色으로 표시한 것은 判讀할 수 없는 것이거나 言語化할

수 없는 符號類이다.

別冊으로 解讀·翻譯篇이 있기 때문에 3색으로 표시한 컬러사진은 굳이 첨부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寫眞 資料 1에 비해서 原本의 角筆點吐 자체가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컬러사진만으로는 判讀이 곤란한 부분도 있고, 또 연구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點吐의 判讀을 확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으므로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조치라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 凡例 4에서는, 3색으로 표시한 점은 실제 點吐보다 크게 표시되어 있으며 확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컬러사진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解讀·翻譯篇의 제2부 「判讀과 解讀 및 翻譯」에는 全卷의 解讀·翻譯이 A, B, C, D, E로 나뉘어 기술되어 있다. A는 각 漢字에 懸吐된 點吐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위치와 형태를 기록한 것이다. 현토 위치는 아래와 같이 漢字 1자에 가로 세로 각 5단으로 된 위치 좌표(11~55)에 따르고 있다.

11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34	35
41	42	43	44	45
51	52	53	54	55

〈현토 위치〉

형태는 單點 ·, 雙點 : · · · · ·, 線 | - / \, 눈썹 = = | · · | · / / · · \ \ ·, 느낌표 ! i - - - . / / * \, * 로 분류하여 나타내고 있다. B는 하나하나의 點吐를 解讀하여 字吐로 바꾼 것이다. C는 韓國語 語順에 맞춰서 풀어 적은 것이다. 加點이 없는 부분은 괄호 안에 補讀하여 적었다. D는 현대 한국어에 의한 直譯이다. E는 東國大學校 譯經院이 번역한 現代 韓國語譯이다. 本文 첫머리의 2行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4 인문논총 제56집 (2006)

본문 04 佛子聞此廣大行 可樂深妙殊勝地
05 心皆踊悅大歡喜 普散衆華供養佛

(以下, 解讀篇 137쪽)

〈주본화엄36, 01:04-05〉

A: 佛子[33(·)] 聞此廣大行[24(1)]{12(-),55(/·),경계선} 可樂
[24(\)#24(··),42(1),44(1)] 深妙殊勝[25(/)#25(·)] 地
[41(·),23(·),12(:)] 心[42(1)] 皆[25(·)] 踊悅[43(1)] 大[24(1)] 歡喜
[23(1)] 普[24(1)?] 散衆[33(·)] 華[41(·),43(1)] 供養佛
[41(·),52(·)]

B: 佛子[1]聞此廣大行[11]可樂[ㄷ, ㄱ, X]深妙殊勝[xㄷ]地[乙, X, ㄴ 1]心
[ㄱ]皆[ㄷ]踊悅[ㄴ ㄱ] 大[11]歡喜[ㄴ]普[11]散衆[1]華[乙, ㄴ ㄱ]供養佛
[乙, ㄱ]

C: 佛子1 此 廣 大 行 11 樂 ㄷ ㄱ {可}(ㄷ)X 深 妙 殊 勝 x ㄷ 地 乙 聞 X ㄴ 1 心
ㄱ 皆 ㄷ 踊 悅 (ㄴ) ㄴ ㄱ 大 11 歡 喜 (ㄴ) ㄴ 普 11 衆 1 華 乙 散 ㄴ ㄱ 佛 乙
供 養 (ㄴ) ㄱ

D: 불자는 이 廣大한 行이 즐길 수 있는 深妙 殊勝한 地를 듣고서 마음
이 모두 踊悅하여서 크게 歡喜하여 널리 많은 꽃을 흩어서 佛을 供
養하며,

E: 이렇게 광대하고 좋아할 행과 묘하고 수승한 법 불자가 듣고 용맹한
마음으로 크게 환희해 여러 꽃을 흩어서 부처님 공양.

엄밀함을 기하고 또 電子 텍스트화하기 위해 (교육지책으로) 이러한 방식이
채용되었겠지만, 좀 번잡하고 알아보기 어렵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點吐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위에 제시한 25개의 위치 좌
표가 정해져 있는데, 漢字 字劃의 형태에 따라서는 點吐의 위치가 어긋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다. 懸吐 위치가 대단히 벗어나 있는 경우는 ‘=’ 기호로
표시하고, 2개 이상의 위치 중 어느 쪽이 맞는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또 하나의 點吐인지 두 개의 點吐인지 판독하기 어

려운 경우도 있다. 위 예의 4행에 있는 ‘樂’字나 ‘勝’字가 그러한 예이다. 또 點吐인지 종이에 난 흡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 기호를 붙이고 있는데, 흡이라고 판단된 경우는 ‘{ }’ 기호를 붙이고 있다. 위 예의 4행에 있는 ‘行’字나 5행에 있는 ‘善’字에 그러한 예가 보인다. 또 複合 點吐의 解讀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을 ‘X’로 표시하고 있다. 위 예의 4행에 있는 ‘樂’字나 ‘地’字에 그러한 예가 보인다.

日本에서 訓點 資料의 解讀 결과를 나타낼 때는 먼저 本文을 翻刻하고(대부분은 寫本이고 또한 楷書體가 아닌 것도 많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釋文(위의 B에 해당) 또는 日本語 語順에 맞춰 풀어 적은 문장¹⁾(위의 C에 해당)으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釋文과 풀어 적은 문장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가스가 마사지(春日政治)의 『西大寺本金光明最勝王經古点の國語學的研究』(1942)의 형식을 본받아서 풀어 적은 문장 형식으로 제시하는 일이 많았다. 日本語 表現으로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풀어 적은 문장 형식이 적합하다고도 말할 수 있으나, 漢文 訓讀文은 본래 漢文의 原表記를 전제로 하여 成立된 文體이므로 釋文 형식이 전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각각의 목적에 맞추어 釋文 형식과 풀어 적은 문장 형식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A에 해당하는 형식은 日本의 訓點語 研究에서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訓點은 實用的인 것이고 加點 用具도 대부분은 毛筆이기 때문에 加點 위치의 엄밀함을 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讀解되어 왔다. A의 작성에 드는 노력과 번잡함을 고려하여 A를 생략하고 B 이하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또 本文을 세분하여 A~E로 제시하는 방법은 자료를 정확하게 객관화하는 데는 적합한 방법이 되겠지만, 전체를 연결한 釋文(B) 및 풀어 적은 문장(C)이라는 관점도 本文 및 資料의 이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제시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解讀·翻譯篇에는 第3部로서 點吐 索引이 실려 있다. 1. 角筆 點吐 索

1) 書き下し文, 혹은 読み下し文이라고 한다.

6 인문논총 제56집 (2006)

引, 2. 解讀 語節 索引, 3. 角筆 點吐 統計 索引(頻度順)이 수록되어 있어서 연구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 시리즈의 解讀·翻譯篇에는 연구 논문도 실려 있다. 이번에도 第1部에 다음의 다섯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1. 李丞宰 「符點口訣의 記入 位置에 대하여」
2. 金英욱 「佐藤本『華嚴文義要訣』의 新羅時代 點吐口訣 研究」
3. 朴鎭浩 「周本『華嚴經』卷第36 點吐口訣의 解讀」
4. 이전경 「연세대 소장 각필『묘법연화경』의 조사」
5. 金성주 「구결자 ‘ㅅ’와 구결점 ‘43(\)’」

이 가운데에는 해당 資料(誠庵古書博物館 所藏 國寶 204호 周本華嚴經 卷第36)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실려 있지만, 일취월장의 발전을 하고 있는 點吐口訣 研究의 最前線을 보여 주고, 긴 안목에서 보면 이들 연구가 해당 資料의 解讀에도 貢獻하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위 논문들 중 朴鎭浩의 논문은 바로 해당 자료의 해독 작업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앞서 本文 첫 부분의 2行만을 들어 點吐의 認定·釋文·풀어 적은 문장을 제시했을 때 이미 문제점이 나타나 있었지만, 더욱이 全卷에 걸쳐 해독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와 함께 가능한 객관적이고 조직적으로 해독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漢字 하나하나의 訓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면 간단히 정할 수 없는 것이 적지 않고, 顯在化되어 있는 訓點과 顯在化되어 있지 않은 訓을 아울러서 전체의 基調를 如何히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존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循環論法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작업의 경험자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第3部에 수록된 索引을 만든 것일 텐데, 苦肉之策을 써서 電算化한 것이라면, 한 발 더 나아가서 文脈이 달린 訓點 總索引을 만들면 어떨까 한다. 이후의 해독 작업에도 도움이 되고 口訣 言語의 파악에도 틀

림없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 C의 풀어 적은 문장을 작성할 때 句末에 點吐가 충분히 加點되어 있지 않을 경우, 句中의 動詞나 名詞의 讀法은 명확히 알 수 없다고밖에 할 수 없고(佛典에서는 音讀하여 概念을 파악하는 것은 可能하지만), 逆으로 句末의 漢字에 點吐가 많은 경우는 읽는 順序가 문제가 되고 動詞나 名詞의 讀法도 정하기 어려워진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지나치게 욕심을 내게 되었지만, 이 시리즈에서 2種의 基礎 資料가 제공된 것은 研究史에 있어서 실로 劃期的인 일이며, 또한 短期間에 成果를 낸 관계자의 열의와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정리된 口訣字는 字體 면에서 볼 때 宗派·學統間의 차이가 반드시 분명하다고는 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華嚴宗系와 法相宗(唯識宗)系의 기본 자료가 간행되었으므로, 訓法·語法 면에서는 차이가 존재하는지 여부(南豐 鉉 博士는 不讀字에서 華嚴宗과 法相宗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2006년 8월 北海道大學에서 있었던 國際 워크숍에서 밝힌 바 있다)도 살펴보고 싶고, 기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싶은 꿈에 부풀어 있다.

(太學社, 2006년 3월 20일 刊, 寫眞 資料 2 값 12,000원, 解讀과 翻譯 2 값 20,000원)